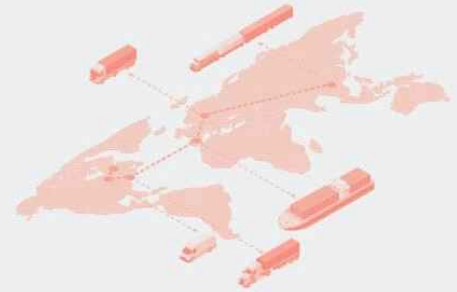




중국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 및 시사점

중국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 및 시사점



목 차

[요약] 한 장으로 보는 중국 자동차 시장.....	1
시장 동향	2
보조금 정책 동향	4
대중 자동차 고관세 영향	5
전망 및 시사점	6

[요약] 한 장으로 보는 중국 자동차 시장 * 2024년 기준

1. 전체 시장

- (전체) 생산·판매량 모두 3천만 대 돌파하며 17년 연속 세계 1위 점유
 - * '23년부터 연간 생산 및 판매 더블 3,000만 대 기록 중
- (내수) 전기차 약진에 힘입어 중국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65.2% 점유
 - * '24년 승용차 현지 브랜드 판매 : 1,797만 대(시장 점유율 65.2%, 전년 대비 9.2%p 증가)
- (수출) 연간 500만 대 이상 수출,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
 - * (일본) 총 421.7만 대(전년 대비 Δ 4.6%), (한국) 총 278.2만 대 수출(전년 대비 +0.6%)

2. 전기차 시장

- 연간 총 천만 대 이상 판매, 중국 자동차 시장 내 점유율 45.3% 돌파
 - * 10년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, 전년 대비 39.7%의 고속 성장세 유지
- 중국 브랜드의 현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80.6% 돌파
 - *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(20.8%)와 Geely(10.7%) 글로벌 시장 점유율 1, 2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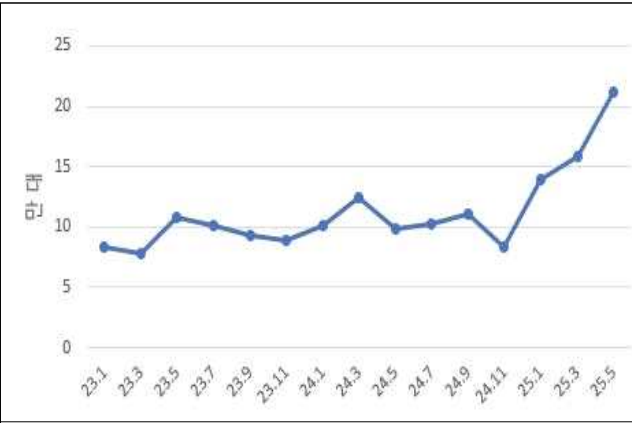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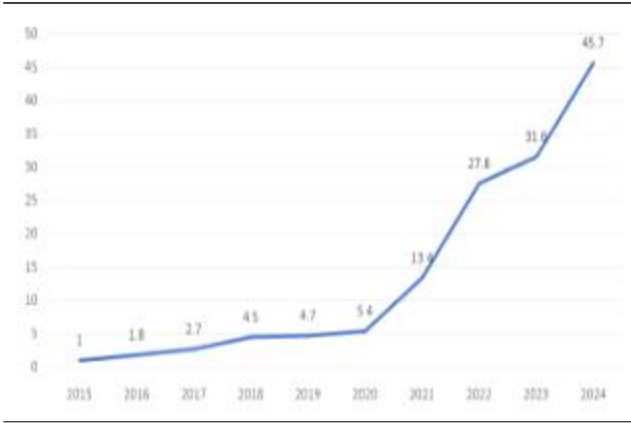
3. 주요 이슈

- (보조금) 소비 촉진을 위한 자동차 교체 보조금 지원책(以舊換新) 확대
 - * (전기차 교체) 2만 위안^{한화} 약 380만 원, (내연기관차) 1.5만 위안^{한화} 약 280만 원
- (구조조정) 전기차 시장 저가 출혈경쟁 심화로 정부 구조조정 검토 중
 - * 전기차 기업 양극화 심화, 중소기업체와 유통상의 도산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
- (관세리스크) 중국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에 따른 해외진출 확대
 - * (미, 캐) 100%, (EU) 최대 45.3%, (튀르키예) 내연+전기차 대상 최대 60% 등

I. 시장 동향 '25년 상반기 기준

□ (특징 1) 내수판매^{1,565만 대}, 수출^{308만 대} 모두 양호한 수준의 실적 시현

- 전기차 판매·수출이 각각 전체의 44%, 34%를 차지하며 시장 성장 견인
- * (판매) 693.7만 대(전년 대비 +40.3%), (수출) 106만 대(전년 대비 +75.2%)



중국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 추이(%)

중국 전기차 수출 현황('23~'25.5, 만 대)

* 자료원: SNE 리서치, 중국 EV100

- 역내 과잉생산 문제, 과당 경쟁 해소를 위해 수출 물량 확대

*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, '25년 연간 80만 대 이상 수출 목표('24년 43만 대)

<중국 자동차 시장 현황>

구분		2023	2024	2025.상반기
전체 (내연기관 +전기)	생산량	3,106만 대(11.6%)	3,128만 대(3.7%)	1,562만 대(12.5%)
	내수판매	2,518만 대(6.0%)	2,557만 대(1.6%)	1,257만 대(11.7%)
	수출	491만 대(57.8%)	586만 대(19.3%)	308만 대(10.4%)
전기차 (승용차+ 상용차)	생산량	958만 대(35.8%)	1,289만 대(34.4%)	696만 대(41.4%)
	내수판매	829만 대(33.5%)	1,158만 대(40.7%)	587만 대(35.5%)
	수출	120만 대(77.6%)	128만 대(6.7%)	106만 대(75.2%)

* 괄호안 : 증감률, 자료원: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

□ (특징 2) 중국 브랜드 약진, 중외 합작 브랜드 부진의 시장판도 고착화

- 전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총 65.2% 점유(전년 동기 대비 9.2%p 증가)

* '25년 상반기 국별 점유율(%): 중국(65.2)>독일(13)>일본(9.6)>미국(4.8)>한국(0.9) 순

** 상위 15개 완성차 기업 중 테슬라가 유일한 외국 브랜드(11위, 시장 점유율 2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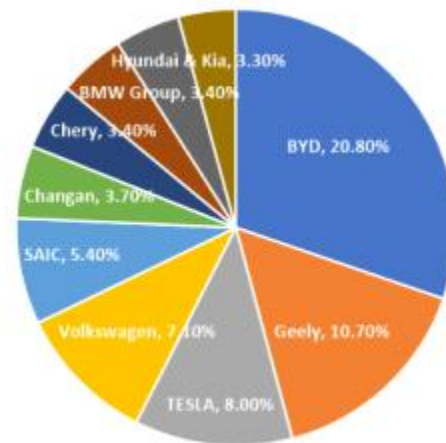
○ 외국계 자동차 실적 부진으로 감산·감원, 전기차 투자 전환 등 조치

※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중국 시장 동향

- T사美 : '25년 상반기 판매량^{26만} 대 전년 대비 18% 감소, 가격 인하(평균 300만 원), 감원 등 조치
- W사獨 : '25년 상반기 판매량^{49만} 대 전년 대비 4% 감소, 전기차 전환 등 구조조정 실시
- B사獨 : '25년 상반기 판매량^{31만} 대 전년 대비 15.5% 감소에도 향후 2년간 차세대 모델을 포함 20여 종의 신차 출시 예정
- H사日 : 중국 공장 2개 폐쇄, '25년 상반기 판매량 감소^{31만} 대로 30% 감산 및 합작법인 감원 시행

* 자료원: 기업별 현지 언론보도

BYD ^{중국}	20.80%
Geely ^{중국}	10.70%
TESLA	8.00%
Volkswagen	7.10%
SAIC ^{중국}	5.40%
Changan ^{중국}	3.70%
Chery ^{중국}	3.40%
BMW Group	3.40%
Hyundai & Kia	3.30%
Stellantis Group	2.90%



자동차 제조사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

* 자료원: SNE 리서치

□ (특징 3) 자동차 시장 빈익빈 부익부 심화, 정부·업계 구조조정 한 목소리

-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→전기차로 전환에 따른 동종 업계 내 저가 출혈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, 시장 정화 필요성 대두

* 전기차 생산 기업 규모 예측 : ('18) 약 500개 → ('24) 약 130개 → ('30) 약 15개^{재정상태 기준}

** 손익분기점(40만 대 이상 판매)을 넘긴 전기차 브랜드는 BYD, 테슬라, 우링 등 4개에 불과

- 기존 차종의 재고 해소, 新차종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'25년 1분기 자동차 산업 이윤율 3.9%에 그침

* 중국 내 자동차 브랜드 약 134개 중 월 판매량 100대 미만인 브랜드 31개에 달함

- 바이두, 화웨이, 샤오미 등 IT 기업 가세로 스마트 전기차 산업 경쟁 가속화

※ 중국 전기차 시장 구조조정 방향 전망

- 중앙기율촉, 국가감찰촉, 주요 부처와 지방정부 대상 전기차 산업 감찰 돌입(5월)
- 정부, 전기차 기업 좌담회 개최하고 '非이성적 경쟁을 중단할 것'을 주문(7월17일)
- 업계는 오는 9월 전기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

<구조조정 방향 예측>

- 중국 전기차 기업은 민영기업이 대부분이며, 자동차 산업은 각 지역 GDP 성장과 직결
-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 조정보다는 출혈 경쟁억제에 초점 예상
- * 예) 지나친 가격 인하 금지, 하청업체 대금 결제 제때 준수 강조 등 시장 내 자금흐름 개선에 목적

II. 보조금 정책 동향

□ (중고-신차 교체) '以舊換新^{이구환신} 교체 보조금 지원책 기대효과 상승

- 소비 진작을 위해 '자동차 以舊換新 보조금 지급 정책 시행(24.4월~) 이후 '25년 5월 현재 기준 보조금 누적 신청 건수* 1,000만 건 돌파

* 폐차 후 신차 구매, 기존 차량 교체 갱신 등 모두 포함

** 예) '25.5월 개인 승용차 구매자의 70% 정도가 보상 판매 수혜자(중국 상무부)

기존		→	확대	
대상	기준		대당	기준
전기차로 교체	대당 1만 위안		대당 2만 위안 ^{약 380만 원}	
내연기관차로 교체	대당 7천 위안		대당 1.5만 위안 ^{약 280만 원}	

※ (2009~2022) 과거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

- 방식 : 기업이 지방정부에 자사 전기차 판매실적과 함께 보조금 신청 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 수령 (先 판매, 後 지급)
- 규모 : '16~'20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은 원화 약 29.5조 원 수준
 - * BYD 1.29조 원(1위), 테슬라 6,466억 원(2위), 나머지 3~10위 기업 수령액 1,840억~3,690억 원
- 불공정성 이슈 : 외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제외('19년 일부 완화*), 중국이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기술(BaS) 장착 시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불공정 규제 포함
 - * '19.12월 이후로 中 정부의 친환경차 목록에 LG엔솔, SK온 배터리 탑재 차량 포함하기 시작

□ (구매세) '22년 보조금 철폐 후 구매세 지원 전환, 심사 문턱 점차 강화

○ 전기차 구매세 지원 정책 시행 (2014~현재)

- 중국의 전기차 구매세는 차량 가격의 10%로 책정, 3만 위안^{약 570만 원} 초과 불가
- 소비자 판매가 33.9만 위안^{약 6,500만 원} 미만 차량은 100% 구매세 감면 대상
- 중국 정부는 '27년까지 최대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50%까지 낮출 예정

III. 對中 자동차 고관세 영향

□ 미국이 쏘아 올린 중국 전기차 대상 제재, EU·중남미 등으로 확산

- 주요 국가·지역·단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공세가 시장 교란, 산업 생태계 위협 등을 유발한다는 공감대 확산
- 반덤핑·반보조금 조사, 관세 추가 부과, 기업 투자 제한, 수출통제 등 다양한 조치로 발현되며, 일부 국가·지역 간 연대 형태로도 나타남

<미국/EU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현황>

구분	국가	관세율	국가	관세율
내연기관차	미→중	47.5%	중→미	10%
	EU→중	10%	중→EU	15%
전기차	미→중	122.5%	중→미	10%
	EU→중	27.0~45.3%	중→EU	15%

* 미→중 관세: 자동차 품목 관세 우선 적용 (MFN 평균치 2.5%+펜타닐 20%+301조 관세(25%^{내연} 혹은 100%^{전기차})
EU→중국: 기존 10% 관세 + 완성차 기업별 상계관세

□ 고관세 우회 수단으로서 중국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 구축 확대

- 중남미, 동남아, 유럽 등 해외 생산공장 설립 사례 증가
- BYD, MG, 체리 등 완성차 기업 및 CATL 등 이차전지 기업도 멕시코, 브라질, 태국, 독일 등으로 신규 생산공장 설립 추진

* 예) CATL, 미국 포드사와 미시간주에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(2026년 가동 시작)

-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, 현지 자동차 생태계 교란 우려 확산
 - * '25. 1분기 태국 전기차 시장 중국 브랜드 점유율 80%(BYD 34%, NETA 20% 등), 동기간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량 중 중국 우링(1천만 원 미만) 점유율 60% 돌파

IV. 전망 및 시사점

- 중국 자동차 시장 연간 '前高後低'(상반기 강세-하반기 둔화) 예상
 - 전기차 수요 감소, 시장 경쟁 격화, 과도한 출혈 경쟁, 중국 전기차 겨냥한 관세 인상 등으로 상반기 강세-하반기 둔화 가능성 있음
- 신흥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공세 확대에 따른 경쟁 불가피
 - 중국 완성차 업체는 관세 리스크 방어를 위해 중남미, 중동·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, 현지 생산라인 확대
 - * 중국 자동차 수출국 변화^{25년 ±} : 사우디(8위, +28%), 카자흐(10위, +78%), 이스라엘(11위, +70%)
- 전기차 기술 중심의 시장 수요에 맞춘 중국 시장 전략 조정 필요
 - 차량용 반도체, 경량 소재, 배터리 관리 시스템, 차량용 SW·솔루션, 감속·변속 기술 등 고성능/고효율 분야는 해외 의존도 높은 편
 - * (참고) 국내외 시장조사기관, 자동차연구원,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
 - 중국 시장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및 부품 개발,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

※ KOTRA 중국지역 자동차 사업추진 방안

- ① 현지 협회(자동차전자협회, 자동차공업협회 등)를 통한 협력 수요 발굴
 - 1:1 핀포인트 GP 상담 지원, 기술협력 포럼 개최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등
 - * 일반적으로 대리상을 통해 납품하는 특징 공략(대리상별 취급 분야 세분화)
- ② 리틀자이언트 기업, 지역별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對韓 비즈니스 수요 발굴
 - 다국적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진입문턱 낮고, 안정적 납품이 가능한 점을 공략
 - * (선전) 전정특신기업발전협회 약 400개사, (베이징) 전정특신발전상회 약 370개사 회원사 보유
- ③ 중국 완성차 기업의 미국 외 지역 진출 기회 역이용, 우리 협력사의 공동진출 추진
 - 동남아(태국, 인니 등)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 진출 증가에 따른 부품 조달 수요 활용

작 성 자

- 아시아중아팀 중국PM 강 민 주

중국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 및 시사점

Global Market Report 25-038

발행일	2025년 8월
발행인	강경성
발행처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주소	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
전화	1600-7119
홈페이지	www.kotra.or.kr

• ISBN: 979-11-402-1401-3 (95320)

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